



제 9회 남가주 설교 페스티벌이 은혜한교회에서 열렸다. 올해 WMU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기독일보



미셸 박 의원이 도어-투-도어 캠페인 자원봉사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 관련기사 3면.

## “북한 무속인과 대결,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라”

### 제9회 남가주 설교 페스티벌 대상의 영예 WMU

제 9회 남가주 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1부 개회예배는 찬양인도CPU 찬양팀, 사회 강경자 교수(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기도 황진기 교수(예반젤리아대학교), 격려사 최규남 총장(그레이스미션대학교), 성찬예식 인도 송정명 목사(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환영인사 송정명 목사, 축도 이상명 총장(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순으로 진행됐다.

최규남 총장은 “설교 페스티벌은 경쟁의 시간이 아니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라며 “여태껏 페스티벌을 꾸준히 이끌어 온 미주성시화 운동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9회째가 되도록 한 명의 진실한 설교자를 기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인 줄 믿는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송정명 목사는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도구로 쓰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하기를 바란다. 설교 강단에 세우기 위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며 “심사위원들로부터 설

교를 평가받기 보다는 보완하는 자리로 여기기를 바라며 환영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페스티벌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연방정부의 인가를 취득한 13개 신학대학 중 6개 대학이 참가했다. 주제는 “다시 시작하자”로, 본문은 구약에서, 시 121:1-8, 사 43:18-20, 렘 29:10-13, 겔 37:1-6과 신약에서 롬 12:1-2, 고후 12:9-10, 골 1:10-12, 히 3:14이었다.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라(에스겔 37: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그레이스미션대학 소엽 전도사는 “우울증에 빠져 소망을 잃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딸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서 아무런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저는 통곡하며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딸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소망의 불씨를 주셨고, 그 후로 저는 눈물을 그치고 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약속을 전했다”고 했다. 이어 “하나님의 말씀과 소망을 붙들기를 바란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며, “우리가 절망 가운데 고백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

답하시는 이유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중심이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설교 대상의 영예는 신의주 맞은편 중국 단둥에서 다문화 청소년 공동체 사역을 하며 매일 2,000개의 빵을 보낸 류명순 선교사(월드미션대학교)에게 돌아갔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빵공장에서 사역을 하던 중 북한 간부가 데리고 온 평양에서 가장 유명한 무속인과 대결하며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를 그리스도께 이끈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했다. 설교 구성력 대상은 그레이스미션대학의 소엽 전도사, 적용 실천성 대상은 국제개혁대학교의 김정영 전도사, 설교 시각화 대상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의 전소연 전도사, 다문화 접근성 대상은 예반젤리아대학교의 김하늘 전도사, 메시지 성숙화 대상은 미성대학교 이민숙 전도사가 각각 수상했다.

설교대상 수상자에게 \$2,000, 각 평가 영역별 대상 수상자 5명에게는 각각 \$1,000씩 장학금이 수여되었다. 설교대상 수상자의 설교는 미주음방송국에서 방송될 예정이다. 토마스 맹 기자

## 美 최근 5년간 성전환 미성년자 약 1만 4천 명

### 성전환 치료의 심각성 알리기 위해 자료 공개

미국에서 최근 5년간 약 1만 4,000명의 미성년자들이 성전환 수술 및 시술을 받았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 자료에는 조사 대상 연도에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한 모든 주와 병원별 세부 내역도 담겼다.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8월 미국 의료감시단체 ‘두 노함’(Do No Harm)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13,994명의 미성년자가 다양한 종류의 ‘성전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 중 5,747명은 성기 제거술 등 직접적인 성전환 수술을, 8,579명은 성전환 호르몬 또는 사춘기 차단 약물 투여를 받았다.

두노함의 스탠리 골드파브(Stanley Goldfarb) 회장은 성명을 통해 “우리의 사명은 실험적인 소아 성의학의 위험성을 폭로하고 관행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환자와 가족, 정책 입안자들에게 미국 내 미성년자를 돌볼 수 없는 길로 이끄는 성전환 치료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자료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골드파브 회장은 “이 데이터는 빙산의 일각이지만, 의료기관

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약탈적이고 비과학적인 의료 개입에 참여하고 이를 자주 홍보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첫 단계”라고 했다.

두노함의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탈트랜스젠더 소녀 클로이 콜(Chloe Cole)도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는 양쪽 유방 절제술을 받은 후 자살을 시도했던 제 사례가 드문 경우라고 주장하는 의료계와 급진적인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증명한다”며 “저는 정치인과 부모 모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이러한 치료가 어디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이킬 수 없고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를 서두르지 않도록 자녀를 보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오랫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임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처방에 대해 경고해 왔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불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트랜스젠더로 식별된 청소년에게 투여하는 여성 호르몬의 경우 잠재적으로 심장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시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링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전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내막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 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광가성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Water Damage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213.310.1800 949-781-9111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리셋되어 주의 증인 되리라”

## 엘바인침례교회 창립 50주년 임직감사예배

엘바인침례교회(권태산 목사)가 창립 50주년 임직감사예배를 13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김영하목사(살롬선교침례교회)는 ‘다시’(누가복음 4:18-1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희년은 안식년(7년)이 7번 행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50번째 해이다. 7은 하나님의 완전수로 7년씩 7번이 지나면 다음에 희년이 찾아오는 것”이라면서 “희년은 쉽게 말해서 ‘리셋(Reset)’, 모든 소유가 원상 복구되고 모든 노예가 자유를 얻게 되는 해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리셋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주님을 향한 첫 마음, 이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50년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희년이 될 줄 믿는다”며 “다시 새롭게 되어서 복음



엘바인침례교회(담임 권태산 목사)가 창립 50주년 임직감사예배를 10월 13일(주일) 오후 4시 30분에 드렸다. @기독교일보

전파에 힘쓰고, 계속 헌신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종학 목사는 축사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삶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다. 이 부름의 상을 쫓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영상 축사에서 2대 담임 임철빈 목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

님의 삶을 본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미주복음방송사 사장 이영선 목사는 “엘바인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한다”며 “새롭게 임직된 분들이 더욱 강건하게 될 줄 믿는다”고 했다.

이날 네 명이 권사로 새로 임직해 은혜를 더했다. 권면사를 한 이기설 목사(터스틴한인침례교회 은퇴목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분명한 자아의식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라는 확실한 자아의식이다”라며 “나라를 위해 일한 군인을 보면 자기 목숨을 다해 충성한 사람 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군인으로서 충성을 다한 참된 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여 집사님들을 ‘다컨니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은 보혜사로 번역된 헬리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로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잘 섬기려면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만하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권태산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토마스 멩 기자

## 실천신학의 침범, 두나미스 소피아 대학

사회가 급변하면서 성경적 진리를 기독교 공동체 현장 모든 분야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실천신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천신학 적용의 극대화’를 표방하며, 학계와 영성의 협력, 학계와 사역 분야의 협업과 다종교, 다문화, 다학제 연구를 추구하는 신학대학교가 최근 캘리포니아 놀워에 신설됐다.

두나미스 소피아 신학교(Dunamis & Sophia University, 총장 이순정 박사)는 11월 5일(화) 오전 9:30 부터 오후 4:10까지 새누리교회(담임 박성근 목사)에서 “성경적 제자의 도”에 관한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세미나를 앞두고, 이 대학의 목회학 박사과정 디렉터 김정원 목사를 만나 학교의 설립 취지와 비전에 대해 들어 보았다.

### 학교 설립 배경

두나미스 소피아 대학은 지난해 새인약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주축으로 한 이 대학은 실천신학 분야에서 혁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박사과정 디렉터 김정원 박사(전 네비게이션교회 스텝, 새인약교회 담임)

국에서는 작년 10월에 설립 예배를 가졌습니다.

### 설립 목적

두나미스 소피아 대학은 ▶ 실천신학의 적용 극대화 ▶ 학문과 현장의 긴밀한 결합 ▶ 학문과 영성의 조화 ▶ 도제식 교육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동 캠퍼스와 글로벌 수업을 바탕으로 교육 시스템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내외 이동 캠퍼스와 멘토링 시스템, 집중 수업 프로그램도 제공됩니다.

플러신학대학원, 남침례신학대학원 등에서 활동한, 실천신학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교수들이 교수진으로 계십니다.

학위 과정으로는 문화 간 연구 신학박사(Th.D. in Intercultural Studies), 기독교 상담 신학박사(Th.D. in Christian Counseling), 성서적 전인적 치유 박사(Th.D. in Biblical Holistic Healing), 목회학 박사(Doctor of Ministry), 문화간 연구 신학 석사(Th.M. in Intercultural Studies)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성서적 전인적 치유 석사(Master of Biblical Holistic Healing), 기독교 상담 석사(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과정이 있으며, 미국과 한국을 넘어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남가주에는 많은 신학교가 있지만, 두나미스 소피아 신학교는 이론과 실재를 통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사역에 필요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실제 사역에서의 경험을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 일일 공개 세미나

11월 5일(화) 오전 9:30부터 오후 4:10까지 새누리교회(975 S. Berendo St. LA, CA 90006)에서 박성근 박사, 이순정 박사(미국 작은 불꽃 선교회 대표), 김정원 박사(전 네비게이션교회 Staff, 새인약교회 담임 목사), 이윤호 박사(두나미스 영성상담치유 연구원 원장)를 강사로 모시고 “성경적 제자의 도”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네 분의 강사분들은 교회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제자 사역을 해오신 분으로, 짧은 목회자 및 평신도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등록은 무료(문의: 714-732-3355)이며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인원은 선착순 50명입니다.

### 신학교의 도전과 전도 전략

이민자 감소와 교인 수 감소로, 신학교 학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세상 속에서 신앙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도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주디 한 기자

대학 홈페이지: [www.dsuniv.org](http://www.dsuniv.org)  
학교 주소: 11005 Foster Rd, Norwalk, CA 90650



## 미성대가 함께 하는 가정회복세미나

미성대학교(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EU, 총장 이상훈 박사)는 오는 10월 24일(목) 오후 4-5시까지 화상 앱 ZOOM을 통해 ‘가정회복과 목회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 강사는 미성대학교 상담학 대학원 교수이자 서울신대 상담대학원 명예교수인 김중환 박사이다. <결혼과 가정상담>, <영성, 카운슬링으로 꽃피우기> 등의 저서가 있다. ZOOM ID: 686 627 2052 PASSCODE: 1234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的一切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자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래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사무실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고난 통해 다음 단계로 이끄셔... 정치로 믿음 실천할 것”

미셸 스틸 박 연방하원의원이 캘리포니아 제45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한다. 공화당 소속인 박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서 미 하원의 주요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그는 지역구 주민들과 한인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에 주력해 왔으며, 특히 독특한 “도어-투-도어” 캠페인을 통해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고 있는 미셸 박 의원은 의정 활동 중에도 신앙적 성장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이번 인터뷰는 그의 3선 도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미셸 박 스틸 연방하원 의원. ©기독교일보

하지만 몇몇 사람만 부유하고 나머지를 다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공산주의다”라고 하셨다.

-하원 의원 기도모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계기가 있는가.  
처음에 워싱턴 D.C.에 갔을 때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지 않았다. 매일 저녁에는 리셉션이나 모임이 있고 그것이 끝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됐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하면서 5시간씩 비행기에서 보내는 것 또한 정말 힘들었다. 딸 생일도 처음으로 놓쳤다. D.C.가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죄의 도시라는 생각이 가득했다. 정말 한계가 왔을 때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이 기도모임에서 ‘내가 미셸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하는데 내가 왜, 또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됐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감사했다. 현재는 이 기도모임이 발전해서 남녀 의원 19명이 기도모임에 동참하고 있다.

-집집마다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캠페인이 돋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왔는가.

지금까지 15만 가구를 방문을 했는데 이 일을 위해 매주 함께 동참하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200명이 넘는다. 매주 토요일 가벼운 복장으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듣는 현안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 그 내용이 물가상승, 유류비 인상, 치안, 펜타닐 문제 등이다. 특히 펜타닐은 18세~45세 사망 원인 1위가 됐다.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로 재료가 건너가 제조된 후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현재 제일 많이 들어오는 루트가 바로 샌디에이고 국경이다. 이 펜타닐로 인해 하루에 200명이 미국에서 사망하고 있다. 범죄율도 덩달아 높아졌다.

-한국계 미국인 의원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미국과 동맹이 돼야 한다는 노선이 분명하다. 한국은 좀 더 미국, 일본 등의 동맹과 가까워져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후 일본에도 자주 갔는데, 국내의 평가는 잘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의 윤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에 있어 국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한국계 하원의원들과도 자주 교류하는가.

현재 한국계 미국인 연방하원의원은 저를 포함해 총 4명이 있다. 북한 문제 등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두고 자주 대화하고 교류하고 있다. 네 명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이나 한인들은 우리를 의회의 메신저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교민들을 위해 항상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도어 투 도어 통해 한인들 목소리 경청” “소방관 채용 시 인종이나 피부색 아닌 자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 이후 상대측으로부터 공격 받아...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이끄셔”

-입법활동 외에도 어떤 부분들에 있어 한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는가.

제가 있는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세금과 무역, 사회안전, 보험, 의료 등의 분야를 관할하고 있다. 때문에 한인들의 필요 현안들이 대부분 여기서 다뤄지고 있다. 특히 무역 부분에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물건들이 못 들어오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도움 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한인 이산가족상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에서는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미국의 한인 이산가족 상봉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등록법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현재는 종잡을 수 없는 모드로 가고 있지만 미국과 대화가 진행될 상황을 대비해 한국계 미국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사람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6월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재선의원으로 지난 4년간 어떤 것을 배웠는가.

처음 2년은 정신없이 지낸 것 같다. 저는 세금 관련 이슈들을 다뤄왔기 때문에 의례히 세입세출위원회로 갈 줄 알았다. 하지만 초선의

원은 이런 탐레벨의 위원회에는 못 들어간다고 했다. 2년 내내 저기를 꼭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다. 미중 전략경제 특별위원회 또한 꼭 제가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했다. 현재는 이 둘 뿐만 아니라 보건 소위원회, 노동 및 복지 소위원회, 교육 및 노동위원회, 인공지능에 관한 초당적 태스크포스 등에서도 활동하게 됐다. 특히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ongressional-Executive Commission on China)는 중국 내 위구르족을 상대로 한 장기적출 등 끔찍한 인권침해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4대째 기독교 신자인 것으로 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영터리 신자다. 물론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고 저 또한 기도하지만 저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느낀다. 워낙 기독교 바탕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여름에는 당연히 성경공부 모임에 가야 하고 집에는 항상 성경책이 있고 할머니와 함께 성경 읽고 찬송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환경이 익숙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벌써 다 만들어 주신 길을 하루하루 열심히 해 나가는 것이라고 믿는다.

-신앙이 의정 활동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

LA시 소방감독위원회에서 LA 공향감독위원으로 올라갈 때의 일이었다. 소방관 채용 시 인종이나 피부색이 아닌 자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이 발언 이후 상대편 사람들이 나를 심하게 공격했다. 나중에는 가족까지 거론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음 단계로 올려주신 것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아 미셸은 분명한 보수적인 생각과 소신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고 믿어주게 됐다. 그래서 공화당을 기반으로 미셸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그 다음으로 또 다음으로 직책이 연결이 됐다. 그 이후 비판에 대해 더욱 여유가 있어졌고 오히려 기회라고 여기게 됐다.

-부모님이 이북 출신으로 공산당 치하를 피해 월남했던 것으로 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어릴 적에 부모님은 월남한 이야기를 평소에도 자주 했다.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 할아버지가 신의주에서 제재소를 하고 있었다. 24시간 안에 3대가 사는 대가족이 소 하나가 끄는 수레 하나에 짐을 실어서 피신해야 했다. 제재소에서 벌목을 한 것을 하나도 실을 수 없고 그저 가족들 먹을 것만 실어서 남으로 내려왔다. 엄마가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난다. 엄마는 ‘공산주의가 그런 것이란다. 남의 것을 다 가져간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눈다고

-현재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교회는 자녀들이 성별을 자기가 부모동의 없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신을 밝힌다면.

당연하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라고 하셨다. 내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학교 교육 과정과 예산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은 주정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별 학교나 교육구에 일일이 제동을 걸기는 쉽지 않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부모들을 교육위원으로 영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교육과 가치관 형성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인 동포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투표는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젊은 한인들이 많이 정계에 도전했으면 한다. 또한 교회는 항상 우리 사회의 중심에 있고,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대원 기자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 가을 스페셜

**NEW 2024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4 HYUNDAI Tucson Hybrid SEL Convenience AWD**

**NEW 2024 HYUNDAI Santa Fe Limited**

**0% APR Financing**

60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Ioniq 5 ONLY)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Up to 48hr Pre

*Lease Special*

**NEW 2024 HYUNDAI Ioniq 5 SE RWD**

**\$179** / Mon + Tax  
12,000 mi/year  
For 24 Months  
\$4,966 due at lease signing  
MSRP \$47,805

**\$13,000 Lease Cash Available**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K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HYUNDAI Assurance**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사랑과 나눔의 실천’ 오픈청기 프로그램 신청 접수



온라인 접수만 가능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환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픈청기프로그램(Open Stewardship Program)이 올해도 나눔 실천에 나선다.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오픈청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오는 16일부터 2024년도 오픈청기 프로그램의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하게 되는 오픈청기 프로그램은 오픈뱅크와 오픈청기재단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지

원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프로그램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지원 대상을 단체가 아닌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시행한다.

오픈청기재단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서류를 접수 받은 후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 및 전화 인터뷰 등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내년 2월말에 지원 프로그램 선정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편이나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www.openstewardship.com) 또는 이메일(info@openstewardship.com)로만 접

수를 받는다.

서류 심사에서는 재단측이 요구하는 서류가 정확히 제출이 되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 이어서 현장방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지원 프로그램이 얼마나 커뮤니티와 연관성이 있고 도움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점이 있는 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지 여부를 재단에서 직접 검토한다.

지난해 수혜단체들의 경우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명확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하며 신규 지원 단체의 경우 지원을 요청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재정 사용 계획을 제

출해야 한다.

오픈청기 프로그램의 신청서에는 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제출 방법, 그리고 신청에 관련된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며 신청서는 오픈청기재단 웹사이트(www.openstewardship.com)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오픈뱅크는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약속을 오픈청기재단을 통하여 실천에 옮기고 있다. 오픈청기재단은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들을 찾아 지원하고 있다.

김민선 기자  
문의 : 213-593-4885  
info@openstewardship.com



MICA 콘퍼런스가 21,22일(월, 화)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다. ©MICA

## 동양선교교회서 MICA 콘퍼런스

“난관을 극복하는 본질의 힘, 작고 유기적인 공동체로 거듭나라”라는 주제의 콘퍼런스가 10월 21일부터 22일(월-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에서 개최된다.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mca.network)와 미성대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사회적 기업가이며, 전 세계 교회, 비영리 단체, 기업을 포함해 수백 개의 선교적 기관을 시작하는 데 기여한 브라이언 샌더스(Brian Sanders,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의 창립자)와 제자 양성자이며 유기적 조직 시스템 개발자인 제시 크루익샹크(Jessie Cruickshank, The Foursquare 교회 사역자), AEU 미성대 이상

훈 총장 및 김지훈 목사, 주상락 교수(Bakke Graduate University 선교학), 권도근 목사(플러튼 나들목 비전교회), 김도일 목사(글렌데일 세계대교회), 서민수 목사(플러튼 방주교회), 표희곤 목사(오렌지 카운티 은혜교회) 함께 한다.

월요일은 담임 목회자 및 기관장들의 모임이며, 화요일 강의는 교회 리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식사 및 등록금은 전액 AEU미성대에서 후원해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에게는 브라이언 샌더스의 책 <마이크로 처치>를 제공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QR코드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

김민선 기자  
등록 문의: 626 228 6557, MICA-NETWORKING@GMAIL.COM

##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미주장신)와 미주성시화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하고 미주복음방송이 주관한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 훈련 세미나가 15일(화),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이패밀리 송길원 대표, 한국영성노년학연구소 김기철 소장, Vision Mentoring International 살롬 김 대표, Well Aging Mission 김재홍 대표를 강사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사역자와 시니어 성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주복음방송의 김병호 대외협력 실장의 사회로, 덴버한인기독교회 송병일 목사의 기도,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김재권 이사장의 성경봉독, 송길원 목사의 설교,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송정명 목사의 격려사와 축도로 예배를 드리고 시작되었다.

송길원 목사는 첫 강의에서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이야기하기에 떠남 또한 아름답고 품격 있게 맞이할 수 있다”며, “행복한 죽음은 행복한 삶이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성찰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교회가 애



제1회 시니어사역교육세미나가 15일(화)미주복음방송국에서 개최됐다. ©GBC

도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권면했다.

두번째 강의를 이끈 김기철 교수는 나이 들어가며, 노화현상으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영적 상실을 겪을 때 인간의 고유함과 고귀함을 잃어가기 쉽다며 “내 안의 고귀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작품의 고유함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노년의 영성을 강조했다.

세번째 강의에서 살롬 김 박사는 ‘생명의 서’를 통해 시니어들이 천국에 있는 행위를 미리 써보는 심정으로 인생을 돌아보며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며 완성해 보기를 권유했다. 또한 삶 속에 얻은 다양한 영, 혼, 육, 물질과 관계의 지혜와 자원을 자녀들과 멘티 제자들에게 전수하여 줌으로써 강력한 지도자로 비전 영역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다고 했다.

김재홍 목사는 네 번째 강의에서 현재 체계적인 시니어 사역 이론과 신학이 미비되어 있고, ‘노인 사역’ 이미지가 지배적이라며 시니어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니어 사역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니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자로 설 때 교회는 큰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윤준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 일일 공개 세미나

금번 Dunamis Sophia University 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하여 교회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강사분들을 모시고 일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 귀중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 성경적 제자의 도(Biblical Discipleship)**

-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9:30AM~4:10PM
- 장소 : 새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 강사 : 박성근 박사, 이순정 박사, 김정원 박사, 이윤호 박사
- 대상 :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 연락처 : 714-732-3355(D. S. U.)
- 등록 : 50명 제한(등록비 무료 & 점심 제공)

**박성근 박사**  
(새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순정 박사**  
(미국 작은 불꽃 선교회 대표)

**김정원 박사**  
(전 네비게이트 선교회 Staff, 새연교 교회 담임 목사)

**이윤호 박사**  
(두나미스 영성상담치유 연구원 원장)

주최 **Dunamis Sophia University**



#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LA동부지역 시니어를 위한 올바른 닥터

로렌하이츠/다이아몬드바/치노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센터메디컬그룹이 시니어전문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 | 로렌하이츠점

### 송홍우 D.O.

가정의학과 전문의

스토니브룩 의과대학 레지던스  
애리조나 대학교 레지던스 수료  
미국 가정의학과 보드 인증 전문의  
영어/한국어 이중국어



최상의 건강 관리를 약속합니다!

## 리셉셔니스트/LVN/RN 모집합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점

월요일 - 금요일 | 8:30am - 5:30pm

# (626) 363 - 4661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 센터메디컬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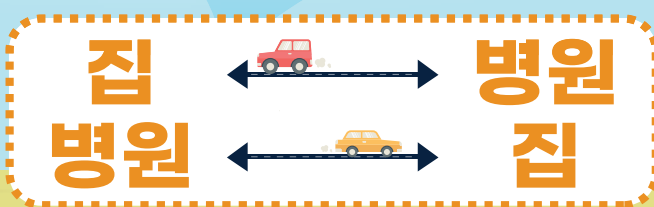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시니어 전문 케어

병원다닐 걱정 끝!

한인 유일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만의 특별한 혜택



- 01 ▶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 혜택
- 02 ▶ 믿음직한 한국인 기사
- 03 ▶ 한국어 상담 가능

예약 문의 ☎ 714-980-3532

예약제 운영 / 사전 전화 상담 필수  
상담 가능 시간: 평일 8:30AM - 5:00PM  
지역과 상황에 따라 라이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박위, 송지은, 축복 속 결혼 “작은 교회로 살아가겠다”

### 박위, 힘든 시기 새벽예배서 송지은 만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 하나님” 송지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유 찾아” 조정민 목사 “이 시대 참된 희망과 감동”

시크릿 출신 송지은과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위가 최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새벽예배에서 시작됐다. 박위는 지난해 12월 공식 소셜미디어인 ‘위라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크릿 출신 송지은과의 열애 사실을 밝혔다.

당시 박위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제게 큰 선물 같은 사람이 찾아왔다.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 마음은 여러지만 강인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상상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송지은도 박위에 대해 “제 삶에 선물과도 같이 찾아온 소중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한다. 사랑하는 저의 연인”이라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에 신기한 마음”이라는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올해 3월 “우리는 서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서로가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연애를 해 왔다. 서로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두터워지면서 미래를 함께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결국 10월 9일 두 사람은 강남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장면은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통해 12일 공개됐다. 영상 말미에는 범키와 어거스트스콰이어가 피쳐링한 하다쉬 뮤직의 ‘NEWWW DAY’라는 찬양이 담겼다.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한

저희의 첫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독실한 기독교인은 두 사람이 이와 같은 문구로 많은 이들을 결혼식의 증인으로 불렀다. 1부 사회는 전현무가, 주례는 송지은이 출석하는 베이직교회의 담임 조정민 목사가 맡았다. 무종교로 알려진 전현무는 “신랑 신부가 처음으로 새벽예배에서 만난 곳이 바로 이 베이직교회”라며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갈까 생각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본격적인 결혼식은 기도로 시작됐다. 신랑 신부는 식상에 입장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신랑 박위가 먼저 시편 23편과 기도문을 낭독하며 서약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년 전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을 때 제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 앞으로 남은 제 삶에 저와 평생 함께하게 될 인생의 동반자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딸 송지은을 평생 사랑하기로 서약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교회가 될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아멘.”

이어 신부 송지은이 기도문을 낭독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도 완벽한,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오늘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어

린 시절부터 마음속으로만 소망해왔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 출발점 앞에서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멋대로일 때도 많았던 어린아이 같은 저였지만, 끊임없이 기다려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저는 저의 삶의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었고 제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삶을 사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신 위 오빠와 함께 이웃을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위 오빠를 평생 귀하게 여기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연출자 되시고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정민 목사는 “정말 평생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열매를 맺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먹도록 허락하는 그런 가정을 이룬다면, 지금처럼 가정이 쉽게 깨어지고 희망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이 참된 희망의 근거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감동을 줄 것이라 믿는다”며 “오늘 결혼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시대에 엄청난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한 열매를 이웃에 충분히 선물하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가정에 주실 자녀들을 사랑과 믿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송지은과 박위. ©유튜브 채널 ‘위라클’ 화면 캡처

소망으로 지켜낼 것을 하나님 앞에 굳게 서약했다. 이후 박위의 동생 박지우 씨가 축사를 전하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박 씨는 “10년 전 형은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들었다. 저는 너무 슬펐다. 하지만 저까지 울 순 없었다”며 “티는 잘 안 내지만, 걱정이 계속 있었다. 여기서 우리 형수님이 등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우리 가족을 묶어준 단단한 하나의 끈”이라며, 송지은에게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축가를 맡은 백지영은 “두 분께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두 사람’을, 홍이삭은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선택, 결정에 대해 만든 노래다. 두 분의 자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하나님의 세계’를 불렀다. 이후 2부 사회로는 박위에게 새벽예배를 추천했던 개그맨 김기리와, 이들과 절친으로 알려진 쇼호스트 이민웅이 나섰다. 또 싱어송라이터 서민아, 가수 범키, 소향, 하다쉬 뮤직이 축가를 불렀다. 박위는 “오늘 작은 천국을 봤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정말 잘 살겠다”고, 송지은은 “긴 말을 하기보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대로 살기로 살아내

는 부부가 되겠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달라”고 했다.

사회를 맡은 김기리는 “위 씨가 너무 밝다. 힘들다는 얘기를 잘 안 한다. 근데 처음으로 힘들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다. 작년에 욕창이 생겨서 눈물을 흘렸다. 욕창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다. 근데 놀랍게 그 욕창으로 인해서 저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새벽예배를 가다가 그때 지은이를 만났다”며 “정말 힘든 시간의 끝에 너무나 큰 선물이 있었다”고 했다. 함께 사회를 맡은 이민웅은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최악의 경우가 있다.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도 많으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두 사람을 보고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박솔기, 박진희, 조혜련, 심태윤, 아년딜라이트, 이영자, 윤소희, 전한길, 송은이, 최강희, 이기우, 바타, 김지숙, 이두희, 슬리피, 주영훈, 이윤미, 정윤혜, 노을, 김지숙, 배윤경, 남보라, 이지선, 선, 김태형, 신애라, 안내상, 홍경민 김윤석, 이영표, 이성미, 박막례, 등의 셀럽들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신의 기자

## 레바논 교회, 공습으로 최소 8명 사망

3주 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에 대한 공세를 시작한 이후, 기독교인 난민들을 보호해 온 레바논의 한 교회에 미사일이 떨어져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역 소식통은 가톨릭 자선단체인 에이드투더처치인니드(이하

ACN)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공습 당시 해당 교회는 피난민을 보호하고 있었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번 공습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던 교회와 그 옆에 있는 두 개의 홀이 무너졌으며, 티레의 멜카이트 그리스 가톨릭 교구에 있는 신부의 집과 사무실이 들어선 3층 건물도

파괴됐다. 베카 밸리(Beqaa Valley)에 있는 바알베크-데이르 엘-아마르의 마론과 대주교 하나 라메(Hanna Rahmé)는 AC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대교구에 있는 기독교인 가족들은 기독교인과 무슬림 난민을 모두 집으로 맞아들였다. 폭격을 피해 도망치는 무슬림들이 이

기독교적 연대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르 엘-아마르 주변 마을의 기독교인 가정은 각각 3~4가정, 즉 30~60명의 이주민을 환영했다”며 “국내 실랑민의 수가 질식할 정도로 넘치지만, 그들을 운명에 맡길 수는 없다. 우리는 ‘나만을 위한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

람을 위한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이어 “NGO들이 학교에서 피난처를 찾는 이주민을 돕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교구가 난민을 수용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야 했다”며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식량, 매트리스, 담요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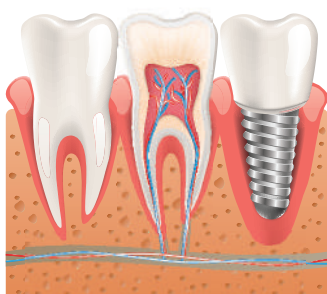
### 이제는 안심하자!

#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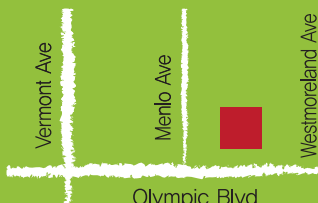


에스더 이 원장

##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곽찬훈 담임목사**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81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모임(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목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팀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담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일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fliff@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성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오전 11:00  
 금요침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추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 Youth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현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김수용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임계등(오정시)  
 주일예배 목요 오후 8:00(연어) / 금요 오후 8:00 (연어)  
 파워워십 2번주 금요 오후 8:00(연어) / 4번주 목요 오후 8:00 (연어)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 LA백송교회, “부흥의 현상보다 화목의 열매에 주목”

지난 13일 저녁 7시 30분 LA 백송교회(담임 김성식 목사)에서 시작된 영성축제에서 이순희 목사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가정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엘에이 백송교회를 개척하고, 현재 인천 백송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순희 목사는, 지난 3년 10개월 동안 새로 작사 작곡한 1500곡 중 설교 메시지와 이어지는 찬양을 중간 중간 부르며, 부흥회를 이어갔다.

특히 가정의 치유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요셉과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의 회개와 변화가 가족의 화합을 이룩함을 강조했다.

또한 은사와 기적만을 바라는 은사주의에 대한 경계와 함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열매맺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며, 부흥의 현상을 바라지 말고 삶과 가정에서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LA 백송교회에서 영성축제가 진행되고 있다. 13일 저녁 7시 30분, 이순희 목사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가정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LA 백송교회

일어나는 화합과 화목의 열매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와 네 온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나 한 사람의 변화를 강조한 첫 부흥 집회는

약 11시 경 기도회로 막을 내렸다. 찬양콘서트에 이어, 제1회 미주 가족치유부흥회가 10월 13일(주

일)부터 17일(목)까지 개최됐다.

10월 17일(목)부터 22일(화)까지 제19차 성령 컨퍼런스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30분에 진행된다.

2013년 12월 1일 경기도 부천에 설립된 백송교회는 현재 인천, 대구, 보령, 캐나다 토론토, 미국 LA에 성전을 세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백송교회 담임인 이순희 목사는 서울신학대신학교에서 선교학 신학박사(Th.D.)를 받았으며 찬양치유 부흥사로 각종 세미나를 인도해 왔다. 저서로는 <복음과 영적 전쟁>, <복음과 내적치유>, <복음과 인생 설계> 등이 있다.

LA백송교회는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에 위치하며, 문의는 562-606-2345와 213-249-4790으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로마서 강해 목회자 세미나**

주제: 로마서 강해 설교의 이론과 실제

일시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9시-오후 1시  
장소 새생명비전교회 EM 예배실

강사: 안선홍 목사  
에플랜타 섬기는교회 담임목사  
연세대학교 철학과 (B.A.)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M.Div.)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M.A.)  
Yale Divinity School (S.T.M.)

## 제2차 목회자 영성회복 기도회

11월 11(월) ~ 13일(수)  
감사한인교회 기도원  
현역 담임 목사 선착순 20명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과 감사한인교회(대표 김영길 원로 목사) 이 공동 주최하는 '제 2차 목회자 영성회복 2박 3일 기도회'가 오는 11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감사한인교회 기도원에서 진행된다.

지난 '1차 영성회복 기도회'에 참여한

던 목회자들은, 서로의 고충에 공감하며 마음 놓아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가 지속되면 좋겠다는 피드백들이 많았다. 이에 '2차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가 다시 계획되었고 이번 기도회 역시 감사한인교회의 대표인 김영길 원로 목사가 강사로 섬기게 된다.

김영길 원로 목사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목회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고,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대상은 현역 담임목사이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2박 3일 동안 숙식이 제공된다.

일정은 11월 11일 (월) 오전 11시에 감사한인교회에서 모여,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같이 한 후 감사한인교회 기도원으로 출발해 11월 13일 수요일에 함께 돌아오게 된다.

참가신청은 11월 5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문의는 미주복음방송으로 (714-484-1190)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 목회자를 위한 로마서 강해 세미나

10/21(월) 9시~ 1시  
새생명 비전교회 EM 예배실

오는 10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목회자 및 신학생을 대상으로 '로마서 강해 세미나'가 새생명비전교회 EM 예배실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안선홍 목사(에플랜타 섬기는교회 담임)이며, 주제는 '로마서 강해 설교의 이론과 실제'이다.

대상은 목회자 및 신학생, 등록비는 \$20이다.교재와 점심 준비를 위해 10월 14일까지 사전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비는 세미나 당일에 돌려준다.

안선홍 목사는 연세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서울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를 마쳤다. 이후 고든 콘웰과 예일대학에서 석사신학을 수학했다. 주디 한 기자 문의: 윤은희 목사(323-535-4590) 김민석 목사(323-333-3218).

## CMF선교원, 124기 결혼교실 졸업식 성료

CMF선교원(대표 김철민)은 지난 10월 13일, 124기 결혼교실 졸업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결혼교실에는 총 11명이 등록하였으며, 그 중 7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수료생들은 결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었다.

한편 CMF선교원은 2025년 3월에 125기 결혼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며,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선교원 관계자는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많은 이들이 결혼에 대한 준비와 이해를 깊이 있게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CMF선교원 기사 제공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CMF 선교원

주소: 5101 Walnut Avenue Irvine, CA 92604 문의 : (949) 857-9425

#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긴' 긴장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J1 MART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 가정교회 활동으로 '징역 10년' 선고된 이란 성도, 5년 만에 석방



이란 국기. ©Wikimedia Commons/Nick Taylor

가정교회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란의 한 기독교인이 5년간 복역한 끝에 석방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권단체 '처치인체인스'(Church in Chains)는 "기독교인 개종자 메흐디 아크바리(Mehdi Akbari)가 테헤란 항소법원에서 형량을 4년 5개월로 감형받은 후, 지난 9월 29일(이하 현지시각) 에빈교도소에서 풀려났다"고 전했다.

메흐디는 2019년 1월 정보요원들이 테헤란에 소재한 그와 동료 기독교 개종자들의 집들을 급습했을 당시 체포됐다. 체포된 이들은 파테메 샤리피(Fatemeh Sharifi), 시민 소헤일리아(Simin Soheilinia), 메흐디 로크파르바르(Mehdi Rokhparvar)였다. 이들 네 명은 에빈교도소로 이송돼 독방에 갇히고 30일간 심문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8억 토만(약 2,160만 원)을 내고 2019년 3월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2020년 6월 16일 이들은 테헤란 혁명법원 28지부에서 "불법적인 복음주의 기독교 단체를 결성해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러시아, 조지아, 터키, 아르메니아 등의 국가에서 선교단체와 교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은 양심수에 대한 가혹한 처우로 유명한 모하마드 모기세(Mohammad Moghiseh) 판사가 맡았는데, 그는 보석금을 70억 토만(약 1억 8,900만 원)으로 늘렸다. 2020년 10월, 메흐디는 파테메와 시민과 함께 각각 10년형을, 메흐디 호크파르바르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두 여성은 나중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남성은 에빈교도소로 이송돼 2020년 10월 17일 형량을 통보받았다. 처치인체인스에 따르면, 메흐디는 수감 중 "누군가 내게 국가 안보에 반하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아는 건 '나는 기독교인이고 앞으로 그릴 것'이라는 것뿐이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과 왕국에 대해 설교할 것'이라는 것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미러(The Mirror)에 따르면, 메흐디는 고문과 장기간의 독방 감금을 포함한 가혹한 환경을 견뎌냈다. 그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등을 비롯한 자신의 경험을 전달했다고. 2021년 12월, 그는 뇌성마비를 앓고 있던 18세 아들 아미르 알리(Amir Ali)의 사망 소식을 접했다. 알리는 아버지가 수감된 후 요양시설에서 살고 있었다.

메흐디는 여러 차례 자신의 형량에 항소했고, 올해 4월 제출한 다섯 번째 재심 신청이 대법원 39부에서 수락돼 그의 형량에 대한 재검토와 석방으로 이어졌다.

관료적 지연과 막대한 보석금 요구로 그는 아들의 장례식에 참석을 위한 휴가를 얻지 못했다. 그는 2022년 1월 1일 10일간의 휴가를 허가받았지만, 장례식은 이미 끝난 상황이었다. 메흐디는 아들이 사망하기 두 달 전 잠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방문을 '20분의 황금과 같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미르 알리가 수감과 죄수복을 입은 나를 보고, 나는 내가 그를 버리지 않았다고 안심시켰다.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은 아미르 알리를 마지막으로 껴안았던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와 함께 수감됐던 메흐디 로크파르바르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기념하는 대규모 사면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풀려났다. 메흐디 로크파르바르는 풀려난 메흐디 아크바리를 환영했다. 메흐디의 석방에 앞서, 같은 항소법원에서 9월 24일 무죄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이란계 기독교인인 아누샤반 아베디안 목사도 석방됐다. 강혜진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교회로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김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내세예배 오전 9:15) 새벽예배 (말씀은인) 01:20  
3부예배(자세예배)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2세를 섬기며, 선교를 영혼을 증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써니김 담임목사  
금요일잠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박은성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를 생애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방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18 수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강지원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위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김재연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새벽기도회 오후 8: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리디오 방송교회 서사라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리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경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더스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총동부 주일 오전 11:00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0:50 토요일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중교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객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객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허튼교회 진건호 담임목사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국윤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3부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이항영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 韓, UN 인권이사국 6번째 당선 “北 인권 적극 참여할 것”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회. ©유튜브/airang TV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임기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이다.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5개 이사국 중 4위로 당선됐다. 190개 참가국 중 161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 키프로스, 마셜제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6개국이 입후보했으며, 111개국의 지지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5개국이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한국은 앞서 2006~2008년 임기를 처음으로 2020~2022년을 포함해 총 5차례 이사국으로 활동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을 안보 및 개발과 함께 국제사회의 3대 과제로 격상시키고자 2006년 유엔총

회가 결의해 만든 조직이다. 국제사회의 인권과 자유를 증진하고,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처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사국은 총 47개국으로 3년 임기이며, 해마다 3분의 1씩 교체된다. 투표를 통해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과반수(97표 이상) 득표한 국가 중 다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외교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은 우리나라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 온 결과이자 적극적·전방위적인 외교 교섭을 벌인 성과”라며 “앞으로 3년간 이사국으로서 북한 인권을 포함해 국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혜진 기자



#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t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일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우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에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재정서사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의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보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을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명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십삼번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 새벽 6:00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이유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ord)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명 (행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美 복음주의자들 투표 여부 대선 결과 바꾼다

한 기독교인 연구자가 “미국교회가 2024년 대선에서 기독교인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며, 특히 복음주의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마케팅 전문가이자 ‘The Christian Voter: How to Vote For, Not Against, Your Values to Transform Culture and Politics’ 등을 비롯해 여러 권의 책을 쓴 정치평론가 크레이그 휴이(Craig Huey)는 2020년 대선 당시 6개 주에서 ‘투표하지 않은 복음주의자의 수’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했다. 이 6개주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이다. 주요 경합 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통령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와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휴이는 경합 주에 거주하는 복음주의 유권자 약 690만 명이 2020년 대선에서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의 데이터에 따르면, 투표하지 않은 복음주의자의 수는 2020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경합 주 6개 중 5개에서 양측 간의 득표 수 차이를 넘어섰다. 휴이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 중 84%가 트럼프를 지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들이 투표했다면 선거 결과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에서 승리했다. 이 주들에서 승리한 덕분에 그는 트럼프의 232명보다 많은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270명을 넘어섰다. 휴이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 공유한 데이터에 따르면, 애리조나에서 730,624명의 복음주의자가 2020년 대선 당시 투표하지 않았다. 바이든은 10,457표 차이로 이 주에서 승리했다. 애리조나는 11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조지아에서 1,349,454명의 복음주의자가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이든은 16명의 선거인단이 있는 이 주에서 11,779표 차이로 승리했다.

휴이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예를 들어 퓨리서치를 살펴보면 50개 주 전체에 얼마나 많은 복음주의자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6개 (경합) 주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의 수를 조사한 후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봤다. CNN



크레이그 휴이. ©페이스북

과 AP, 그리고 다른 기관들이 매 선거마다 하는 출구조사가 있다”고 했다.

휴이는 “자칭 백인 복음주의자의 수를 살펴보고 그 데이터를 주의 복음주의자 수와 비교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다고 믿는 ‘거듭난 복음주의 기독교인’ 690만 명이 2020년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그는 2020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2024년에 투표에 참여할지는, 미국 목회자들이 선거에 앞서 취하는 조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휴이는 CP에 “다가올 선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것은 교회”라며 “목회자들은 회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투표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비밀 무기는 교회인데, 목사들은 조용하다. 복음주의자들 중 교회가 자신의 가치에 반대하지 않고 찬성 투표를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휴이는 복음주의자들의 표를 트럼프가 2016년 선거에서 승리하고 2020년 선거에서는 패배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했다. 그는 “2016년에는 더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투표장에)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 경합 주에서 차이를 만들어 낼 만큼 충분히 중요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복음주의 목사들, 비영리 단체들, 대형교회들은 트럼프를 지지했고, 그들의 회중에게 나가서 투표하라고 권면했다. 그들은 2016년에 위스콘신과 몇몇 경합 주에서 대규모로 집집마다 방문했으나, 2020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는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선거 결과를 어느 쪽으로든 좌우할 수 있는 상당한 표”라고 했다.

강혜진 기자

# 틱톡, 미성년자 데이터 보호 위반 혐의로 美서 소송 당해

틱톡(TikTok) 플랫폼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혐의로 14개 주 법무장관 연합에 의해 소송을 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1일 보도했다.

2016년 9월에 출시된 틱톡은 사용자가 몇 초에서 몇 분 길이의 영상을 게시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다. 틱톡은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뉴욕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롭 본타가 이끄는 14개 주의 초당파적 연합은 이달 초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는 틱톡이 청소년들에게 중독성이 강하며, 플랫폼에서 홍보된 위험한 ‘챌린지’ 때문에 청소년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22년 3월 여러 주 법무장관들이 시작한 조사에서 비롯됐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소송에서 2023년 2월 뉴욕 맨해튼에서 지하철 서핑 도전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15세 소년의 사례를 언급했다. 소년은 죽기 전 틱톡에서 지하철 서핑 챌린지를 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챌린지에서 신원을 숨기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스키 마스크 광고도 보았다. 또한 제임스 법무장관은 틱톡에서 확산된 ‘기아 챌린지’를 지적했다. 이 챌린지는 기아와 현대차 모델을

어떻게 훔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으로 구성됐다. 그는 “틱톡 챌린지가 기아 차량 도난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하며 “2023년 버팔로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로 4명의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도 틱톡 챌린지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젊은이들은 틱톡과 같은 중독성 있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때문에 정신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틱톡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플랫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틱톡이 ‘부모 권한을 통한 아동 온라인 보호법’을 위반해 어린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팩스턴은 소송을 발표하며 “틱톡과 다른 소셜 미디어 회사들이 텍사스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우선하지 않고 있다”며 “텍사스 법은 소셜 미디어 회사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부모에게 도구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틱톡 대변인은 “이러한 혐의는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하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승연 기자



# 美 교회, 자녀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들 위한 사역 시작



버크 커뮤니티 교회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 ©Burke Community Church

미국 버지니아 주 북쪽에 위치한 버크 커뮤니티 교회가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사역은 학교와 의료 전문가들이 자녀의 사회적 및 수술적 “성전환”을 시도할 때 이를 반대하는 부모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

버크 커뮤니티 교회는 워싱턴 교외의 비종파 교회로, 생명, 결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성경적 원칙을 고수한다. 교회는 신앙고백서와 헌법에서 “성별과 성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 정하신 것이며, 이는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시편 139:13-16을 인용하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이 사역은 'Wonderfully Made'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성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지원과 지도를 제공하며 함께하겠다고 약속한다.

버크 커뮤니티 교회의 상담사인 크리스탈 크럼은 CP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가정, 특히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부모들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그런 부모들이 갈 곳이 있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역은 CP가 주최한 “Unmasking Gender Ideology II” 행사에서 발표됐다. 이 행사는 성 정체성 이데올로기가 자녀, 가족, 의료 전문가들에게 미친 영향을 다룬 주제로 진행되었다.

버크 커뮤니티 교회 교인인 수잔 애쉬턴-라자로아에 의사는 성 불일치로 고통받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돕는 필요성을 인식했다. 행사 마지막 패널 토론에서 그는 “성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기 위한 방법으로 심리학자와 상담사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진정한 정신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쉬턴-라자로아에 의사는 “아동에게 성 불일치 진단을 남발하고 그들에게 신체를 변형하라고 조언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몸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언젠가 성 이데올로기가 패배할 것이라고 희망한다. 부모들과 할머니들이 자녀들이 ‘과학 실험’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혜진 기자

# 美 지방법원, 성전환 케이크 제작 거부한 제빵사 손 들어줘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 ©Alliance Defending Freedom 유튜브 영상 캡처

콜로라도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성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 제작을 종교적 이유로 거부한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8일 발표된 판결에서 법원은 자신을 여성이라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 오티 스카디나가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4 대 3으로 기각했다. 벨리사 하트 판사는 다수 의견을 작성하면서 스카디나의 차별 청구가 필립스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지방법원은 여기에 제시된 차별 주장을 적절하게 고려할 수 있는가? 이 분쟁의 절차적 여정을 감안할 때, 그럴 수 없다”고 했다.

판사는 “콜로라도 시민권위원회와 콜로라도 시민권부가 앞서 마스터피스와 필립스에 제기한 스카디나의 행정 소송을 기각하기로 합의했지만 스카디나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스카디나는 법률상 무죄화된 명령을 제공하지 않고 행정 심판을 종결하기로 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스카디나는) 지방 법원에서 차별 소

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우리는 스카디나가 지방 법원에 (자신의) 사건을 적절하게 제기했는지 여부를 포함한 기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하급법원) 이송 명령을 허가했다”고 했다. 판사는 사건을 기각하면서 “스카디나의 (콜로라도 차별금지법) 청구의 이점도, 마스터피스의 행위가 수정 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지 여부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리처드 L. 가브리엘 판사는 반대 의견을 작성하여 다수 의견이 판사들이 마스터피스와 필립스에게 잘못된 절차적 통과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 판사는 “본질적으로 다수의 판결은 스카디나를 법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그가) 새로운 법률 해석에 근거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책을 추구할 기회를 박탈했다. 그 해석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주장하지 않았고 내가 아는 한 어느 법원도 채택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스카디나는 필립스와 마스터피스 케이크숍을 상대로 자신의 성 전환을 축하하는 핑크색 케이크에 파란색 프로스팅을 얹는 것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혜진 기자

<p>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p> <p>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p> <p><b>한빛장로교회</b></p> <p>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p> <p><b>구경모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p> <p>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 5:30(토) 오전 6:00</p> <p><b>인랜드교회</b></p> <p>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p> <p>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p> <p><b>안 환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p> <p>금요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토요일(마지막주) 오전 6:00(토) 오전 6:00(토) 오전 6:00</p> <p><b>할렐루야한인교회</b></p> <p>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p> <p>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ia@hnsia.org</p> <p><b>송재호 담임목사</b></p>	<p>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5부예배 오후 8:00</p> <p>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토)오전 6:30</p> <p><b>ECO선한목자교회</b></p> <p>교회여, 성숙하라!</p> <p>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p> <p><b>고태형 담임목사</b></p>
<p>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p> <p>-1부 07:30AM - 1부 09:00AM - 광일(월-금) 06:00AM</p> <p>-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 06:00AM</p> <p>-3부 11:00AM</p> <p><b>글로벌선교교회</b></p> <p>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p> <p>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p> <p><b>김지성 담임목사</b></p>	<p>대예배 11:00 AM Youth (8th - 12th) 11:00 AM</p> <p>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7:30 PM</p> <p>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p> <p>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p> <p><b>언약 교회</b></p> <p>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p> <p>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p> <p><b>장수영 담임목사</b></p>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p>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p> <p>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b>기쁜우리교회</b></p> <p>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p> <p>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p> <p><b>김경진 담임목사</b></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오전 11:00 초등부 오전 11:00</p> <p>중고등부(아기배움) 오전 11:00 영아부(배움)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Youth 금요일(미) 오후 7:30</p> <p><b>나성복부교회</b></p> <p>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p> <p>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p> <p><b>유경재 담임목사</b></p>
<p>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p> <p>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p> <p><b>만남의교회</b></p> <p>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p> <p>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p> <p><b>이정현 담임목사</b></p>	<p>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11:15A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p> <p>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p> <p><b>에브리데이교회</b></p> <p>예수로 충만한 교회</p> <p>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p> <p><b>손창민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p> <p>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p> <p><b>예수동행교회</b></p> <p>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p> <p><b>안정섭 담임목사</b></p>	<p>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b>은혜와평강교회</b></p> <p>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p> <p>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p> <p><b>곽덕근 담임목사</b></p>
<p>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p> <p><b>웨스트힐장로교회</b></p> <p>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p> <p>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p> <p><b>오명찬 담임목사</b></p>	<p>월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새벽예배 오후 1:30 금요일(월-토) 새벽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p> <p>OC예배 9:00(월-토) 오후 7:30 새가족 등록 오전 5:30 / 토 오전 8: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p> <p><b>주안에교회</b></p> <p>In Christ Community Church</p> <p>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p> <p><b>최혁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공부 오후 7:30</p> <p><b>발렌시아 샘물교회</b></p> <p>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p> <p><b>이건창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6:30</p> <p><b>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b></p> <p>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p> <p><b>지동근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00</p> <p>새벽예배(화-금) 새벽 6:00</p> <p><b>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b></p> <p>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p> <p><b>박성호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p> <p><b>라스베가스 중앙교회</b></p> <p>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p> <p><b>임인철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인어)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p> <p><b>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b></p> <p>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p> <p><b>강일진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침례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p> <p><b>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b></p> <p>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p> <p>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kc/index.php</p> <p><b>이정환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p> <p><b>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b></p> <p>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p> <p><b>송삼용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p> <p>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p> <p><b>라스베가스 장로교회</b></p> <p>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p> <p><b>정공필 담임목사</b></p>
<p>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p> <p><b>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b></p> <p>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p> <p><b>조응철 담임목사</b></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p> <p><b>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b></p> <p>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p> <p><b>이병걸 담임목사</b></p>
<p>주일 예배 오전 11:00(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b>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b></p> <p>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p> <p><b>박은호 담임목사</b></p>	<p>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p> <p><b>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b></p> <p>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ounchurch.com</p> <p><b>임명진 담임목사</b></p>



크리스천 비즈니스

#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비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전도용 물티슈, 전도용 물티슈, 전도용 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쌀 오박떡, 솔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함유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함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과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 시니어센터, USC와 협업 한인 건강연구 프로젝트 착수

한인타운 시니어 &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가 USC와 손잡고 “한인의 담배 사용, 간접흡연 노출 및 위암 위험(Tobacco use, passive smoke exposure and gastric cancer risk among Korean Americans)”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기간 동안 USC와 시니어센터, 두 기관은 담배 관련 질병 연구 프로그램(Tobacco-Related Disease Research Program, TRDRP)으로부터 총 \$1,448,767.00 기금지원을 받으며 시니어센터는 \$618,767.00 기금을 받게 된다.



시니어센터가 USC와 손잡고 한인 건강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왼쪽 신영신 이사장, 오른쪽 이은정 USC 예방의학 박사 @시니어센터

USC에서는 이은정 박사(USC 예방의학/공중보건과학과)가 총괄 진행한다. 신영신 이사장은 “연구기간 동안 시니어센터는 USC와 같이, 흡연자와 간접흡연자 200명 설문조사, 헬리코박테리균 테스트, 전문 웹사이트 개설, 행정지원 및 안내, 타운홀 세미나 미팅 개최 등 여러가지 관련 사업 및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2년(2024~26)이며 2년 후 결과가 좋으면 3년 연장이 가능해 총 5년 동안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된다. 미국 의학계에 따르면, 미주한인 및 아시아-태평양-섬주인 자료는 0.02%에 불과하며 의학계 자료의 99.98%는 백인 흑인 라티노 자료이다. 또한 미국 인구 10만 명 당 위암 발병 비율로 봤을때, 한인 35명, 백인 8명, 히스패닉 13명, 흑인 14명으로 한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절실한 과제이다. 시니어센터 기사 제공

## 어노인팅교회, 공진단 클래스 성황

라크랜타에 위치한 어노인팅교회(신경섭 목사)는 전도사역의 일환으로 ‘공진단 클래스’를 12일(토) 오전 11시에 열었다.



10월 12일(토) 어노인팅 교회는 전도사역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공진단 클래스’를 진행했다. @어노인팅교회

‘공진단 클래스’는 미리 준비된 반죽을 참여자가 동그랗게 만들어 포장하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 사역을 주관하는 서민수 목사(방주교회)가 함께했다.

1부에서는 ‘FISH 전도’라 하여 주위의 VIP를 Find(찾고), Invite(초청하고), Share(삶을 나누고), Help(돕는) 내용을 전하고, 2부에서는 공진단 클래스를 진행했다.

본 사역을 준비한 어노인팅교회 신경섭 목사는 “교인들 또 교인들이 초대할 지역의 주민들이 삼삼오오 테이블에서 공진단을 만드는 가운데 화기에애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교회를 쉬던 분이 참석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공진단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공진단이 필요한 분이 교회에 발견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라고소감을 밝혔다.

을 복용한 한 교인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불면증이 심했는데 어제밤 잘 잤다. 더 구입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교인은 “몸이 좀 피곤했는데 공진단 복용 후 좀 풀렸다”라고 소감을 내었다. 어노인팅 교회(신경섭 목사)는 영적 건강, 육적 건강, 마음 건강 즉 영혼육이 건강한 전인 건강 사역을 계획하던 가운데 육적 건강에 해당

하는 공진단 사역을 도입한 것이고, 계속해서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사역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교회 전도 사역의 일환으로 ‘공진단 클래스’의 실제 사례에 대해 궁금한 교회는 신경섭 목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문의: 신경섭 목사 (224.622.9183, mcc3694@yahoo.com) 이윤준 기자

## 폴 아트 리 초청 개인전 ‘생명의 빛, 그 사랑 이야기’

K 갤러리에서 초대하는 폴 아트의 9번째 개인전이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EK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개인전의 주제는 ‘생명의 빛, 그 사랑 이야기’(Light of Life - The Love Story)이다.



폴 아트 리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예술가와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생명의 빛’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예술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발견되는 자유와 평화와 사랑에 대한 개인적인 탐구를 해 나가고 있다. 그의 예술 작품은 예술가이자 목사는 그의 이중 역할을 반영하여 표현된다.

폴 아트 리의 9번째 개인전이 10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EK 갤러리에서 열린다.

그는 이탈리아 키안치아노 비엔날레에서도 미국 작가로서 작품이 선정됐다. 그는 개인전을 바로 앞둔 상태에서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미술관(Carrousel du Louvre art fair 2024, Carrousel du Louvre, Paris, France)에서 진행되는 아트 페어에 참석했다. 그는 1984년 만 21세에 제2회 서울 국제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이후에 약 39년만에 국제 전시회에 출품하여, 제29회 Art North international 2024 전시회에서 우수상(Award of Excellence)과 특별상(award of Excellence)을

수상했으며, 플로리다에서 열린 제 14회 국제 비엔날레(14th Biennial National Art Exhibition 2024)에서도 우수상(Merit Award Winner)을 수상했다. EK 갤러리는 1125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에 위치해 있으며 오픈 리셉션은 10월 26일(토) 오후 6시에 있다. 관람 시간은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며 문의는 323.272.3399로 하면 된다. 이윤준 기자



김훈 칼럼

“어느 날 상담을 마쳤는데,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김훈 목사  
호주기독교대학

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 사람, 남편의 통제로 답답해하는 아내, 부모님을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어린 시절부터 늘 외로웠던 사람, 결혼을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 관계가 늘 버거운 사람, 불안감으로 늘 살아가는 사람, 문제 자녀로 고민이 많은 부모, 화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 등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서 수십년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관심이 많고, 그 마음의 고통이 기쁨으로, 그 기쁨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늘 그려보며 살아갑니다. 만인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876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모두 같은 뜻은 아닙니다. 마음과 관련된 성경구절을 읽고 그것의 영어 의미를 찾다가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어로 똑같이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경우 ‘Heart’이고, 어떤 것은 ‘Mind’, 어떤 것은 ‘Spirit’도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과 영(靈)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학문이 있지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입니다. 영어로는 ‘psychology’, 인간의 정신(psyche)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음이 정신과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사물에 대해 어떤 감정, 의지, 생각 등을 느끼거나 일으키는 작용이나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마음이 지·정·의와 관련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감정, 생각, 기억 따위가 생기거나 자리를 잡는 사람 가슴 속에 있다고 믿어지는 공간’.

지금까지 마음에 대한 설명을 다 합쳐 보면, 마음은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영, 기억 등과 관련해 우리에게 반응하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많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아무리 조건이 좋고 잘 생기고 주위에서 사귀어

보라고 권해도, 요즘 젊은이들은 마음이 가지 않으면 어른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젊은 청년에게 조건 좋은 치과의를 소개했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이 동해야 움직입니다.

수년 전 방송이지만, KBS에서 ‘마음’을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마음을 ‘나를 지배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언급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중 한 가지가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입니다. 두통약이라며 지급한 비타민이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었고, 심지어 새로 개발한 암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속여 약을 먹였더니 암세포가 사라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실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은 육체적 건강을 돌보는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너무 많이 노력하지만, 마음을 돌보는 일은 등한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있는데, 마음의 병들은 대부분 마음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생각’이 왜곡돼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자신과 세상과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자신을 한없이 불쌍하게 보기도 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 살 이유가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불안 장애로 힘들어 하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자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 자친구가 문자를 보내오지 않았다며 ‘이제 내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어!’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분노가 잘 생기는 사람은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강박증은 원치 않는 생각이 자주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내 손이 자주 감염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잘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생각하고, 평소 생각 훈련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마음의 생각을 지키는 훈련을 위해 감정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낙담하거나 화가 나면 그것을 신호등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적 고통이라는 사인을 통해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 감정과 행동에 직결돼,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갑시다.

신성욱 칼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나는 높은 곳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고소공포증’이 있기에 높은 곳에 올라 가면 무서워서 살이 떨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곤 한다.

그런 점에서 수직에 가까운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네 발로 마음껏 올라가고 뛰어다니는 산양이 신기하기만 하다. 산양은 숨 막히는 절벽도 척척 올라간다. 높은 바위산에서 절벽을 타는 산양의 모습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낀다. 3m 높이도 푹푹 뛰어다니고, 90도에 가까운 바위 절벽도 척척 올라가 산 정상에 다다른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는 어린 산양조차도 엄마 산양을 따라 절벽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노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산양이 절벽을 잘 타는 비밀은 산양의 발에 있다고 한다. 산양은 암벽에 난 조그만 틈에 뾰족한 앞발굽을 밀어 넣어 몸을 지탱할 수 있다. 발굽의 돌레가 튼튼해 바위틈에 발굽이 끼어도 발굽이 부서지지 않는다. 단단한 발굽 돌레는 안쪽의 부드러운 발바닥에 상처가 나는 것을 막아준다.

높게 올라온 발 뒷굽은 경사진 곳에서도 몸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한다. ‘중력의 법칙’마저도 가뿐하게 거슬러버리는 듯하다.

왜 산양은 편안한 평지를 놔두고 가파르고 위험한 바위에 사는 걸까?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높은 산이 산양이 살기에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이라 한다. 절벽을 잘 오르지 못하는 맹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양은 가파른 절벽이나 바위가 험하게 널린 곳을 지나 산 정상까지 아주 곧잘 올라간다.

대신 산 정상에 매서운 추위와 거센 바람을 견뎌야 한다. 그래서 온몸은 단백질로 된 두꺼운 털로 덮여 있다.

봄·여름에는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두툼하던 털이 벗겨지면서 몸이 가냘프게 작아진다. 대신 봄·여름에 난 아

삭아삭한 풀과 잎을 먹으며 살을 찌운다. 가을에는 열매도 먹고 털도 자라 일 년 중에 덩치가 가장 커진다고 한다. ‘유각무치’(有角無齒)라는 말이 있다. ‘강한 뿔을 가진 짐승은 이빨이 없다’라는 말이다. 이는 하나의 생물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는 복을 받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비슷한 예로 매우 흡사하게 생긴 노루는 뿔이 있고 이빨이 없는 반면, 고라니는 뿔이 없는 대신 엄니(큰 이빨)를 갖는다.

이런 사실을 관찰해보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와 솜씨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산양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심이 너무도 감사하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도 ‘각기 그 종류대로’, ‘저마다의 다른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셨음이 놀랍기만 하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우연’이나 ‘목적 없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 속에 창조되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세심하게 보호하고 배려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가득 차기까지는 ‘심판을 보류하시는 분’이시다(창 15:16). 이스라엘의 철전지원수 나라인 니스웨 백성들의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아끼시는 분’이시다(욥 4:11).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계획하셔서 창조하신 작품들이다. 우주와 천체는 물론이요, 사람과 식물과 동물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 그들을 설계하고 지으신 절대자의 의도와 목적이 존재함을 인지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필연’만이 존재한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지닌 채 보내졌음을 기억하자. 나 역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하심 속에 이 땅에 태어나 그분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형상대로 구별되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지금보다 더 멋지게 잘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202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시훈 박사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CPU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SEVIS I-20 발행,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CSI, SACS, ABHE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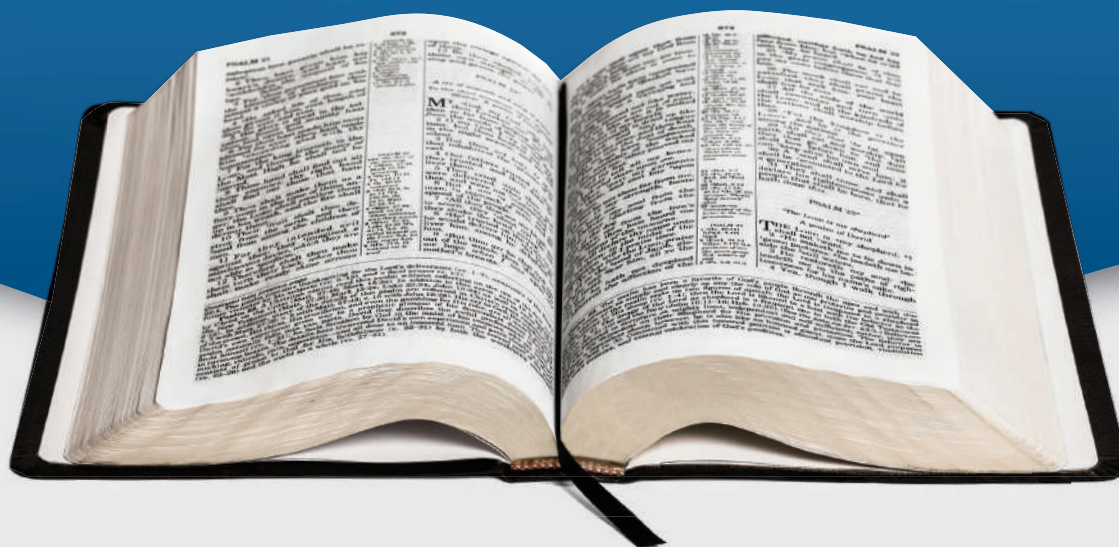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노트북

2등



아이패드

3등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민중기 칼럼

# 앤아버의 독수리 5형제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교회 원로  
KCMUSA이사장

미시간주 앤아버에 집회차 다녀왔습니다. 앤아버의 다섯 교회 목회자들이 연합으로 집회를 열었고, 그 중의 앤아버 한인교회는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를 겸하였습니다. 금, 토, 주일 3일 동안 “하나님의 생명강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욱이 앤아버 한인교회는 창립 57주년 기념 예배를 겸하여 드렸으므로, 그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히려 목회자의 사랑과 아픔, 인상적인 헌신과 결연한

지에 감동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앤아버는 동-서를 자동차로 30분이 채 되지 않는 소도시입니다. 10만 남짓한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미시간 대학 풋볼 구장은 전체 시민을 모두 모은 수보다 더 큰 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1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미국 최대의 풋볼 운동장입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전 미국 대학 1등이라는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미시간대 출신으로 고 구영록 교수님의 이야기를 한인교회의 권사님께 들었더니, 권사님 남편과 친구였던 잊을 수 없는 분이이라며 즐거워하셨습니다. 앤아버에 사는 한인인 3,000을 넘는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인 학생이 유학생으로 혹은 교민으로 와서는 공부를 마치고 본국으로, 혹은 직업을 찾아서 앤아버를 떠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앤아버에 왔다가 경험을 쌓고 이내 떠나기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심령도 종종 단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랫동안 목회자로 남아있는

분들이 생기면서, 성도들의 마음도 열리고 신뢰 관계도 형성되었습니다. 앤아버에 있는 일곱 교회 중 다섯 교회는 함께 연합 사역까지 실천하는 건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섯 교회의 목사는 적박한 이민교회의 상황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용감한 독수리 5형제와 같습니다. 57년 전부터 개척되어 막 생일을 맞이한 앤아버 한인교회의 이주형 목사님은 12년이 넘도록 충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를 섬깁니다. 5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자라났는지, 아이만 보아도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네 교회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역한 그리스도 안의 동지애와 연대감을 가지고 사역하는 앤아버 장로교회의 황재중 목사님, 앤아버 소망교회의 배현석 목사님, 앤아버 감리교회의 조현준 목사님, 그리고 앤아버 성서교회의 김석현 목사님이 계십니다. 집회 후 주일 저녁에는 허리를 다치신 조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목사님과 5명의 사모

님이 모여 즐거운 대화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다섯 교회의 목사님이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며 동역하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의 목회자가 보여준 결단과 노고를 고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앤아버라는 작은 동네에서 장기간 목회하는 것은 “대교회 목회”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년간 동역하다가 떠나는 성도 때문에, 한 목사님이 “영영 울었다”는 고백이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한 성도를 양육하여 결국 다른 교회로 파송한다는 것은 보내는 목회의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야망을 내려놓은 목회자들이나 순박하게 자라나는 착한 자녀들은 한편으로는 경이로움의 원인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애잔한 마음의 샘입니다. 독수리 5형제에게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 현대 예배자들을 위한 고전음악의 재 발견 (4)



윤임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이처럼 라틴 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동기로 만들어진 레퀴엠은 전통적으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주용 예술 음악이다. 이 장르는 시대별로 뛰어난 작곡자들이 그 시대에 나타난 예술적 가치와 기술들을 접목해 합창음악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서양음악사에 있어 합창음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좋은 유산을 잘 전수해 오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텍스트 적인 면에서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작은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토로하며 심판대 앞에 선 인간이 구원을 호소하는 애절하게 기도, 그리고 천국에서의 기쁨을 그리는 가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애도하고 추모하며 드리려는 의도로 이 음악을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 담긴 메시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

역하며 세상에서 자신들의 삶을 돌이키고 옷매무시를 정돈하게 하고 있다. 결국 이 음악이 주려고 하는 본질적인 의미는 시대를 살아가는 예배자들을 향해 삶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가르침에 있는 것이다. 2.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Johannes Brahms, 1833-1897, Ein Deutsches Requiem, Op 40) 1) 브람스의 삶 브람스는 1833년 독일 북부 항구도시 함부르크(Hamburg)에서 아버지 요한 제이콥 브람스(Johann Jakob Brahm, 1806-1872)와 어머니 크리스티나 브람스(Johanna Henrika Christiana Nissen Brahm, 1789-1865) 사이에서 태어났다. 더블베이스 주자인 아버지의 음악적 영향을 받았고 루터란 교회 신자인 부모의 신앙으로 유년 시절부터 신앙적으로 자란 브람스였지만 생활은 늘 가난으로 찌들어 살았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신앙의 힘으로 가난을 극복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차근차근 준비하였다. 그는 전 생애 동안 루터란 성경을 늘 곁에 두고 탐독하였다고 한다. 후에 브람스가 성악곡을 작곡하면서 성경에서 가사들을 발췌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의 나이 20세 때 음악 인생에 큰 전환이 되는 계기를 맞았다. 당대 최고의 작곡가 요 피아니스트였던 로버트 슈만(Robert Schumann, 1810-1856)과 그의 아내 클라라 슈만(Clara Schumann, 1819-1896)을

만나게 되었다. 브람스가 19살에 썼던 자신의 곡 C Major Sonata를 슈만에게 들려주자 크게 감동한 슈만이 자신이 발행하고 있는 음악 간행물 “Die Neue Zeitschrift Fur Musik”에 “Neue Bahnen, 새로운 길”이란 제목으로 브람스를 극찬하며 천재음악가의 출현을 소개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브람스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또한 이후 슈만의 집에 머물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후 슈만의 갑작스러운 정신병, 자살, 병원 입원, 급기야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때의 모든 뒷바라지를 브람스가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평생 슈만의 아내 클라라와 깊은 우정과 사랑을 나누었다. 2) 작곡 동기 및 특징 1865년 2월 2일, 브람스는 동생 프리츠로부터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즉시 오세요”라는 긴급 전보를 받았다. 76세의 어머니 크리스티나 브람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내용이었다. 브람스는 비엔나에서 서둘러 어머니를 찾았지만, 함부르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크리스티나 브람스의 삶은 쉽지 않았다. 12살에 재봉사로 일하기 시작한 그녀는 41살에 야 브람스의 아버지 요한 제이콥(17살 후배인 가난한 음악가)과 결혼했다. 34년 후 결혼 생활은 악화되었고 남편은 1864년 그녀를 떠났다. 부모님을 모두 사랑했던 브람스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상실감은 작곡가에게 큰 영향

을 미쳤다. 이런 어머니의 죽음이, 이 작품의 직접적인 촉매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미 9년 전 그의 스승인 슈만이 사망한 후인 1857년 시작되었다. 이후 1867년 세 곡(1-3번)을 가지고 초연을 하였고, 이듬해에 여섯 곡(5번 제외)으로 연주한 이후 1869년에 5번을 더하여 총 7곡의 완성된 곡을 가지고 초연을 하게 되었다. 브람스는 그동안의 레퀴엠 장르의 관행을 깨뜨리고 혁신적으로 새로운 레퀴엠 장르를 확립하여 개신교(Protestant)의 레퀴엠이라는 타이틀을 한 유일한 작곡가이다. 이것이 개신교 레퀴엠이라 명명하게 된 것이다. 브람스의 레퀴엠은 모든 관습적인 규칙을 제쳐두고 유한한 삶을 사는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슬픔과 희망에 대한 심오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진술을 전개해 나갔다. 그가 사용하는 텍스트는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를 사용하였는데 브람스는 라틴어가 더 이상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며, 이는 청중에게 더 이상 개인적이고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레퀴엠의 전통적인 단어를 버림으로써 교리나 교파의 문체에서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창조적 틀을 넓혔다. 그래서 브람스 자신이 직접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발췌한 새로운 텍스트를 대입시키게 된 것이다. 이것을 통해 그는 의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 슬픔, 희망의 문제에 대해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To be continued).



**NEW COVENANT ACADEMY**



# CELEBRATING 25 YEARS

**AN IB WORLD SCHOOL**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FOR MORE INFO



SCAN ME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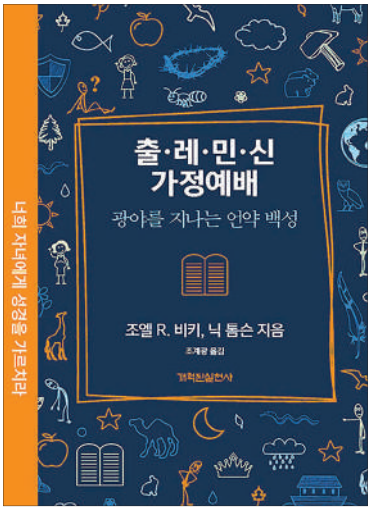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가정예배의 개혁된 실천 위한 안내서

# 크리스천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은 왜 복이 있는가?



### 출 · 레 · 민 · 신 가정예배

조엘 비키 & 닉 톰슨 |  
조계광 역 | 개혁된실천사 |  
380쪽 | 20,000원

이 책은 신론의 핵심 주제를 다루면서 신학, 역사, 철학, 변증학, 문학, 예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단순한 교리 학습을 넘어 삶의 실제적 적용에 이르는 풍성한 신앙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적 깊이를 바탕으로 목회적 적용을 겸비하여 독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회복하고, 그분의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깊은 감화를 경험하며, 그분의 진리와 사랑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비관적으로 말하자면, 가정 예배는 기독교 안에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점점 힘을 잃어가고 곧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

하지만 영원히 인자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천대에 걸쳐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대대로 언약의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 그래서 옛 언약의 백성에게도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고(신 6장), 새 언약의 백성에게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계속해서 양육하라고 요구하셨다(엡 6:4).

자녀 양육의 중요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항상 초유의 관심사다. 어떻게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모라면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믿는 부모는 무엇이 자녀에게 진짜 좋은 것인지 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영구적으로 잘 되려면 그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사귀를 누려야 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가정예배 부활을 꿈꾸고,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이다.

조엘 비키와 닉 톰슨은 <창세기 가정예배: 세상의 시작>에 이어 <출·레·민·신 가정예배>라는 책을 통해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부모들을 위한 지침서(5-6쪽)"를 제공했다. 그들의 목적은 "성경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건전한 가정 예배를 위한 지침, 곧 5-12세 아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 가족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를 제공하는 데 있다(6쪽)". 두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요삼 1:4, 11p)"이라고 확신한다. 청교도 신학을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적으로 알리고 가르치는 데 평생을 바친 조엘 비키와 <아래로

성장하는 삶>을 통해 성경의 덕목(겸손)을 매우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능력을 입증한 닉 톰슨이 공동 저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지침서는 신뢰가 된다. 총 88회의 가정예배 지침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역사 순으로 정리돼 있다. 1부 광야해방(출 1-18장)부터 2부 광야에서의 예배(출 19장-레 17장), 3부 광야의 방랑 생활(민 1-36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4부 언약의 갱신(신 1-34장)으로 구성돼 있다.

각각의 지침은 시작하기, 본문 읽기, 해설, 기도의 순서로 제공되는데, 저자들은 이것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작하기와 본문 읽기에서 관심을 이끌고 읽은 것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이 2-3개씩 주어지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주인으로 명령을 내리기보다 종으로 섬기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10쪽). 부모는 저자들이 제공한 질문과 관점, 해설 등을 참고해 자녀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부모의 능력과 수준에 맞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비키와 톰슨이 이 책을 통해 자녀에게 개혁주의 신학을 심어주기 원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설에도 분명히 반영된 신학적 의도이다. 심지어 자녀에게 성경 구절뿐 아니라 교리 문답을 암송하도록 권한다. 개혁주의 신학이 생소한 부모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지극히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어서, 자녀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종류의 안내서나 목상집, 큐티 책 등은 저자가 제공한 내용 못지 않게 독자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주는 유익의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활용을 잘 못하면 별로 유익이 없고(그래서 책이 별로라고 생각하기 쉽다), 저자의 의도대로 활용을 잘한다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의 유익을 십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비키와 톰슨은 의도적으로 한 번에 나누는 가정예배 본문의 길이를



©Pixabay

짧게 잡았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단지 본문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살아내도록 설득하려고 깊이 요청한다. "전인격적인 요소를 고려(9쪽)"이라는 것이다.

가정예배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자녀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또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부모도 자녀가 입술로는 그리스도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마음으로 그분과 멀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복 받은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주님을 아는 교훈으로 양육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훈계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자녀를 잘 되는 길로 인도하는 이 고귀하고 중대한 일에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기 원하는 모든 부모들이, 비키와 톰슨의 안내서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리라  
요한복음 15:10

If you keep my commands, you will remain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s and remain in his love.  
JOHN 15:10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Multi-Function Printers

KONICA MINOLTA bizhub

2024 SPECIAL PROMOTION

##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포럼, 디지털 시대 미디어 통한 복음 사역 나눠

### 전 세계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리더십, 서울서 첫 국제 모임 가져 글로벌 교회의 미디어 인식·존재·사역 지원하고 교육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복음 전파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대를 맞아, 글로벌 교회가 미디어 사역에 전략적으로 참여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포럼’(Lausanne Media Engagement Forum)이 최근 제4차 로잔대회 이후 후속 모임을 가졌다.

‘미디어 인식, 미디어 존재, 그리고 미디어 사역’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서울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진행된 모임에 강사로 참여한 로잔 지도자들은 “이번 모임은 2010년 제3차 로잔대회에서 시작된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포럼의 전 세계 리더십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진행된 국제 행사라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우리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향력 있게 소통하는 방식을 글로벌 교회에 알려주고 싶고, 또 젊은이들이 건강한 미디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2일 한사랑교회에서 만난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리더십들은 카탈리스트이자 TWR 아프리카 미디어 리서치 전략가인 루돌프 카부츠(Rudolf Kabutz) 대표, 애뉴얼 크리스천 월드뷰 필름 페스티벌(Annual Christian Worldview Film Festival) 설립자이자 미디어 토크(Media Talk) 101 디렉터인 필립 텔퍼(Phillip Telfer) 대표, 인도 유아비전 커뮤니케이션(UrVision Communications) 및 아나오 재단(Apnao Foundation) 공동 설립자인 알렉스 간타(Alex Ganta) 대표, 로잔운동 글로벌 카탈리스트이자 글로벌 어린이 포럼 진행자 펄 간타(Pearl Ganta) 대표, 랜드마크 미니스트리 대표 및 설립자이며 루스타(RUSTA) 인터내셔널 공동대표 및 공동설립자 오영섭 목사(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포럼 코리아 준비위원장) 등이다.

카부츠 대표는 이날 먼저 “과거 미디어 사역은 미디어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기독교인은 주로 선교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미디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자가 미디어와의 연관성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미디어 참여’(Media Engagement)를 언급할 때, 많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연관된다. 지금까지는 몇몇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나눴지만, 더 많은 네트워크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카부츠 대표는 이어 “이

번 4차 로잔대회에서 느낀 것은, 많은 사람이 미디어를 알고 배우기 원한다는 것이었다”며 “여러 행사를 미디어로 도와주는 분들도 오셔서 어떻게 미디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어 했고, 다른 기관의 미디어 리더로 사역하는 분들도 그들의 사역에서 기술을 어떻게 더 잘 사용할지 배울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사업 전문직 종사자들도 오셔서 많은 커넥션을 가졌다”라며 “한 예로 사회 문제를 다룬 유명 저널리스트인 제레미 테일러(Jeremy Taylor)는 다른 저널리스트들을 돕는 데 관심이 많다.

또 최근엔 저널리즘 책을 발행해 기독교인들이 도전과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카부츠 대표는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의 존재 이유에 대해 “첫 번째, 교회가 미디어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식 중 하나는 미디어에 특화된 전문인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함께 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한다”며 “이번 모임에서도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람들을 모으고 협력시킬 뿐 아니라 준비시켜서, 미디어로 더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많은 기술을 제공하고, 그들이 다른 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라고 덧붙였다. 카부츠 대표는 “두 번째, 미디어 전문가들을 준비시켜 증인이 되도록 한다”며 “미디어와 연관된 직장에서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장에서 진실성을 가지고 일할 때, 미디어 제작자로서 전문성 있게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들의 삶 자체뿐만 아니라, 협업과 동역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 번째, 라디오의 연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젊은이들, 또 대학 교수 등 자신의 직장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미디어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돕고 가르친다”며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이 상황적 맥락과 연관성 있게 전파되도록 돕는다”라고 말했다.

원래 미디어는 오래전부터 복음 전도의 중요한 도구이자 매개체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IT 기술 발달 등과 함께 미디어를 활용한 사역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카부츠 대표는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미디어는 항상 중요했다. 그러나 팬데믹 이전에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미디어가 중요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라며 “달라진 것은, 팬데믹 이후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하지 설득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미디어를 어떻게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가 많은 시대에 사람들



제4차 로잔대회 후속 모임으로 진행된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포럼 행사에 참여한 로잔 리더십들 ©로잔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포럼 준비위원회

은 계속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미디어가 넘쳐나고 있어 무의미한 대화 등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기가 너무도 쉽다”며 “사람들에게 미디어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영향력 있게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 또 가정에서 젊은이들이 건강한 미디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원한다”라고 말했다.

미디어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기술로는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대답했다. 카부츠 대표는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려면 나이 많은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페이스북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을 봐야 한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 있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사람과 소통하기를 원할 때, 이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도구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부츠 대표는 이번 후속 모임에 대한 소감을 묻자 “미디어 종사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지 보고 가장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고통과 자신을 연관시키고 실제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그 이야기를 미디어로 다뤄,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등 진정성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고, 여러 번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그는 “미디어 참여에 대해 더 배우기 원하는 분들의 관심이 있음을 보고, 저희 포럼에 참여시켜 훈련하는 방안을 더 고민하고 있다.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더 행하실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립 텔퍼 박사는 이번 모임에 참여한 소감으로 “기독교인들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새로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포럼을 활용해 왔다. 인쇄기,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그리고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짧은 비디오 콘텐츠와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 있다”며 “이 포럼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알렉스 간타 대표는 “많은 미디어를 가지

고 미디어에 참여하고,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많은 분을 만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라며 “미디어는 삶을 바꾸고 사람들이 선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곳에 훈련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필 간타 대표는 “하나님께서 다른 기술과 다른 자원과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것 같다”며 “혼자 있을 때는 작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기술과 자원을 합치고 나눌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정치 등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할 때 우리는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으로서 더 앞장서서 다음세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 제작자로서, 미디어가 그러한 목소리를 높이는 좋은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모든 세대가, 특별히 어린 다음세대가 지금 이 세대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오영섭 대표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황에 담아내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미디어 참여”라며 “지금은 디지털 시대라고 말한다. 디지털 매트릭스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다 죽는 시대로, 디지털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효율적,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미디어 참여다. 이것을 통해 디지털 세대를 품고 담아내고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특별히 열방의 디지털 세대가 도시로 다 몰려오고 있다”며 “도시의 특징 중 하나는 미디어 인프라가 가장 강력하고 충분하다는 것으로, 효과적인 미디어 참여를 통해 열방에서 온 미전도종족 이주민에게 나아갈 때, 미디어 참여로 세계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를 위해 이 모임이 필요하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생령 특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고,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며, 지역사회 전도와 열방 전도에 힘쓰고자 하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에 헌신할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실 분
-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분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
-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전도에 열정을 가지신 분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걸려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또는 미국 체류에 걸려 사유가 없으신 분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배우자의 역할,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영상 File)
6. 추천서(추천인이 직접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 1부

**서류제출 마감일** : 2024년 11월 14일(목)까지

**제출처**  
주 소 :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 MO 63074  
e-mail : STLFKPC3350@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3. 추천인의 연락처를 보내 주시는 추천서 또는 이메일에 기재 바랍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pcc.org)



# LA 시티교회 써니 김 목사 <라오스 선교 사역보고서>

LA 시티교회 써니 김 목사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동남아시아 지역 선교에 대해 보고를 보내왔다. 그 첫번째로 라오브 방비엔에서 열린 '몽족과 카므족 지역 4개교회 연합목회 지도자 세미나'에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전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식적인 기독교 집회가 금지된 불안한 상황이기에, 써니 김 목사는 현지 준비팀과의 긴밀한 협력 가운데 최대한 안전한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왔다.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는 이중 통역을 하는 고된 가운데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어느때보다 집중하고 몰입함으로 모두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써니 김 목사는 전했다.

특히 복음전파가 금지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다녀온 경험이 대부분인 현지인 목회자들은 이외에도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과 영적인 싸움이 늘 있지만, 현지 김영진 선교사의 헌신적인 섬김과 지도자 교육으로 사역을 이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했다. 써니 김 목사는 첫날 집회에 이어 이튿날 워크샵과 피드백, 간증을 통해 참석자들은 "일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다"고 고백해 모두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넘쳤다.

김 목사는 이를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는 LA 시티교회와 후원자들,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라오스 집회에 이어 바로 베트남으로 건너가 선교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더욱 기도로 중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 이하 써니 김 목사의 라오스 선교보고

**일정:** 2024년 9월 23일 ~ 9월 26일  
**장소:** 라오스 방비엔  
**대상:** 몽족과 카므족 지역의 4개 교회 연합 목회 지도자 세미나  
**참석인원:** 64명

2024년 9월 23일, 라오스 공항에 도착한 후 차로 약 2시간을 이동하여 오지에 위치한 강의 장소와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특히 라오스는 사회주의 국가로 공식적인 집회로 모일 수 없게 되어 있고 누군가가 신고하면 불법집회로 김영진 선교사님이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집회에 참석한 현지 목회 지도자들이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위해 김영진 선교사님과 현지 목회 지도자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일터가 선교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강의는 몽족과 카므족의 현지 목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들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강의의 내용을 중심으로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강의 몰입

강의는 몽족어로 통역한 후 다시 카므족어로 이중 통역을 해야 했지만, 현지 지도자들이 집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을 보며 성령님

의 강력한 도우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일에 대한 성경적 관점으로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는 순간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일이 가족부양을 위한 생계로만 생각했는데, 이번 강의를 통해 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연장선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동역의 일이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통해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들의 고백은 저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힘든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적 삶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현지 증경노회장님의 피드백에 모두가 동의하며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어진 강의

우리 모임의 장소는 불법 집회로 신고될 경우 경찰이 와서 해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안정된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식사 문화는 양이 적고 매우 소박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이 주식이었으며, 반찬도 없이 고기 조금만 얹어 먹는 그들의 식사를 보며 제가 미국에서 누리는 풍족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 김영진 선교사님의 헌신과 사역

이번 선교를 통해, 라오스에서 14년 동안 현지 목회자들과 교회들을 섬겨온 김영진 선교사님의 헌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몽족과 카므족의 지도자들을 꾸준히 교육하고, 현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복음전파와 동시에 현지의 문화적 어려움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교회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다녀온 경험이 있을 정도로 선교적 도전이 큰 환경 속에서 김 선교사님의 사역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과 같은 많은 헌신적인 선교사님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라오스의 복음 전파는 지금처럼 강력하게 이루어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두가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됐다고 써니 김 목사는 전했다.

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영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계속 지원하고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선교사님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 현지 목회자들에게 일터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일깨우고, 그들이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일터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은 라오스에서 복음의 씨앗이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워크샵과 피드백

첫째 날과 둘째 날 모두 워크샵을 통해 현지 목회자들이 강의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해력과 결단을 통해 강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증경노회장님의 인사말을 통해 그들이 강의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들었을 때, 큰 감동과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억압을 받는 사회환경속에서 남자 지도자들에게 부인들을 사랑할 것을 약속 받았고, 함께 참석한 여성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 현지 목회자들의 간증을 통한 헌신과 도전

라오스의 목회자들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다녀온 경험이 많은 이들입니다. 복음전파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경찰과 군인, 그리고 높은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음전파의 어려움도 컸지만, 김영진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섬김이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현지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마지막 결단과 파송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참석한 모든 목회 지도자들을 가정선교사와 일터선교사로 파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영진 선교사님의 유능한 통역 덕분에 강의는 매우 재미있고 유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저에게 계속해서 와달라고 요청했고, 허락된다면 매년 한 번씩 이곳에 와서 그들의 삶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감사 인사

이번 선교 사역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신 LA 시티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선교에 비전을 두고 함께 섬겨주시는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섬겨 주신다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함께 동행하신 세계선교찬양교회를 담임하시고 찬양사역자이시며, 일터선교를 목적으로 JGP 건강신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조미자 목사님께서 하루에 두 번씩 깊은 울림이 있는 성령 찬양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조 목사님의 찬양은 참석한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라오스 선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최선을 다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시편 23:1)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 선교 강의를 위해 공항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의 선교의 여정을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전 10시 50분

주소: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교회전화는 (323)833-9090이다.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뒹꾸며 살았다는 것,  
그 노동하고 한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작은 나눔이 모여 더 큰 사랑을 전합니다

#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2024년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수혜 단체**를 찾습니다!

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는 한인 사회 및 지역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프로그램 확장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비영리 단체들을 모집 중이오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ww.openstewardship.com](http://www.openstewardship.com) >

신청서 다운로드와 접수, 자격요건 및 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오픈청지기 프로그램 지원단체 모집 요강

### 신청기간

2024년 10월 16일 - 2024년 11월 27일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증빙 서류들과 함께 업로드 해 주세요.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수혜단체 발표

2025년 02월 28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혜단체는 웹사이트, 신문광고,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